

고창군, 지역 활기 찾기 생태관광 활성화

운곡습지·고창갯벌 등 콘텐츠 활용 생태관광 전략 마련 '그린오션' 산업으로 농특산물 판매 의존 수익기반 극복

정적 생태환경을 자랑하는 고창군이 관광객이 찾아오고 지역이 활기를 찾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전략 마련에 나섰다. 고창군은 지난 3일 고창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강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비전·전략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고창은 2013년 군 전역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고인돌·운곡습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후 관광객이 2015년 기준 1만 7844명에서 2018년 2만 4844명, 소득은 2015년 1억 7200만원에서 2018년 2억

6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군은 고창운곡습지 일원 용계마을·호암마을 등 6개 마을에서 진행한 치유형 농촌관광 프로그램 현장 적용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관광객의 문의가 쇄도하는 점에 착안, 생태관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익기반이 농특산물 판매 등에 그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 군은 2020년 9월까지 전문기관(한국생태관광협회) 용역을 통해 생태관광 중·장기 로드맵 수립, 성과 평가 지표 개발, 주민 역량강화 및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우수 생태자원 발굴·자원 연계방안 마련



지난 3일 고창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강의실에서 유기상 고창군수 주재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비전·전략 수립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고창군 제공>

등을 하기로 했다. '그린오션' 산업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운곡습지와 고창갯벌 등의 콘텐츠를 잘 활용해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순창군, 버들지구 개발사업 '순조'

'지역 행복 생활권 정책' 공모 선정 3년간 23억원 지원

순창군은 전국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농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새마을사업)인 순창 버들지구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 버들지구(유동면 유촌·유천마을·사진) 새마을사업은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지역 행복 생활권 정책'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3년간 총 2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위생·안전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지역의 취약요소를 주민 니즈에 맞게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마을 보전유지형'으로 전국 어느 지역에 살든 관계없이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 6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노후주택 석면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 고시도 마쳤다. 또 최근에는 세부사업 설계용역 업체 선정도 완료했다. 군은 내년 2월까지 세부설계를 마치고 일상감사, 시행계획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안전과 재해에 취약했던 안길 확장, 산사태 위험 주택가 석축쌓기, 재해 위험지구 하천 운백 쌓기 등 생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향수주 순창군수는 "새마을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해 주택정비와 생활, 위생, 안전 등 버들지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필요한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마을, 주민 삶의 질이 크게 높아져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익산시, 용화산·함라산 조립사업 올해 마무리

익산시는 올해 용화산·함라산의 조립사업을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 6억원을 투입해 함라산과 천호산 등 주요 산림 65ha에 2~4년생 편백나무 12만 그루를 식재했다. 또 용화산과 봉개산, 두동편백숲 임도변 등 33ha에 단풍·곶박나무 등 조경수 2만 그루를 심었다. 올해는 편백나무를 분산되지 않은 대규모 단지로 조성하고 임도변에 직선형(가로수 형태) 경관수와 주요 등산로변에는 꽃나무를 심어 특색있는 테마별 숲을 조성했다. 테마숲은 성당면 두동리 일대와 용화산에 조성됐다. 성당면 두동리 일대는 기존

편백숲과 연결해 15ha에 편백나무 2만 그루를 심었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20ha에 추가 조립사업을 추진해 총 5만 그루의 대단지 편백나무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두동 편백나무숲에서 일찌봉까지 이어지는 임도변 3km 구간에는 단풍나무와 이팝나무, 용화산 등산로변 나대지에는 곶박나무, 왕벚나무 등을 식재했다. 시는 나무가 자라면서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풍부한 피톤치드를 발산해 쾌적한 산림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정읍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수조사 실시

정읍시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읍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단전과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병·의원 과다이용자 등의 파악에 나선다. 또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기관 단체와 협조해 공동주택 관리비와 임차료 체납자, 장기 결석 아동, 가족과 단절이 된 독거노인 세대 등을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겨울철을 맞아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인적 안전망 '정읍희망지킴이' 활동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위기대상으로 통보된 명단 외에 위기상황이 예측되는 고위험군

가구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현장확인을 통한 안부 확인과 상담, 발굴된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로 지속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해 보호·안전·돌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발굴할 계획"이라며 "정읍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순천시, 1000만 관광시대 '눈앞' 순천만정원 인근 야시장 만든다

동천저류지 1만1000㎡ 복합문화공간 조성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 중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 야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순천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동천저류지 1만1000㎡ 부지에 푸드 트럭을 활용한 복합 문화공간을 만든다. 시는 이곳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야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19억원의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보고했다. 예산이 통과되면 시는 푸드트럭 50대를 동천저류지에 마련하고 데크와 안전펜스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 경관 조명과 전기시설을 만들고 관광안내소와 의료 시설도 갖춘다. 순천시는 야시장이 활성화되면 여수 '남포포차'처럼 관광객들을 지역에 붙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시장 조성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상인들은 기대감 속에 기존 상권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근 오천지구 상인회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면 관광객들이 유입돼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대만 만큼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우려도 있고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시는 상인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야시장 조성 계획과 필요성을 알리는 등 홍보에 나섰다. 순천시 관계자는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체류하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이라며 "설거지 존을 만들고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친환경 시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전라남도새마을지도자대회 1200여명 참가 성료

전라남도새마을회는 지난 5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새마을지도자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전라남도새마을지도자대회 및 해양쓰레기 제로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지구온난화와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일깨워 나가기라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새마을회는 '생명살림운동' 일환으로 ▲3R자원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 ▲비점오염원저감을 통한 영산강살리기 ▲아름다운골목길가꾸기 ▲갯살리기 ▲태풍피해지역 해양쓰레기수거활동 등을 추진해 왔다. 의식행사를 시작으로 2019년 새마을운동 성과보고, 포상수여, 대회사, 격려사, 축사, 해양쓰레기 제로화 업무협약식, 해

양쓰레기 제로화 결의(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영농폐기물수집소 설치와 농약병수거로 깨끗한 환경 조성, 사랑의 연탄나누기 등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해 온 이귀중 무안군협의회장과 여름환경안내소 운영, 녹색나눔장터운영 및 영암군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으로 우리 농수산물 애용 홍보에 앞장서 온 김미순 영암군 새마을부녀회장에 새마을훈장을 각각 수여했다. 이귀중 전라남도새마을회장은 "생명살림운동을 펼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회는 지난 50년의 경험을 토대로 생명사회를 최종 목표로 해양쓰레기 제로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정신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5
	총계	28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대학원 0621 605-1115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 ~ 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신학과(Ph.D.)	7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통계학과(D.C.S.)	5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0	
		석사통합	신학과(Th.M.)	20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원서접수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2019. 11. 19(화) ~ 11. 27(수)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2019. 12. 2(월) ~ 12. 11(수)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